

Merton의 거시 수준 아노미 이론은 여전히 유효한가?

미국 50개 주의 세 가지 유형의 범죄율을 중심으로*

송 효 중**

국 | 문 | 요 | 약

본 연구는 Robert K. Merton(1938, 1968)의 거시 수준 아노미 이론에서 제시된 범죄발생의 메커니즘이 실제로 거시 수준에서의 범죄율 변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50개 주를 분석단위로 하여 이론의 핵심 개념인 문화 및 사회구조를 경험적으로 측정하였고, 이들의 조합을 통해 분류된 사회의 유형이 범죄율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범죄의 유형에 따라 이론이 제시한 전망들에 일부 부합하거나 상반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목표지향범죄와 폭력범죄의 경우, 이론의 전망과는 반대로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아노미적 문화의 경향이 약한 주에서 오히려 높은 범죄율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사이버범죄의 경우, 이론의 전망과 유사하게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아노미적 문화의 경향이 강한 주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범죄율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erton이 전망한 거시 수준의 범죄발생 메커니즘이 오늘날 전통적 범죄보다 사이버범죄를 설명하는데 더 잘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2.9.30.3.207>.

❖ 주제어 : Merton, 아노미, 긴장이론, 경제적목표지향범죄, 폭력범죄, 사이버범죄

* 이 연구는 2020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I. 머리말

일탈 및 범죄의 발생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려는 여러 이론적 접근들 중 Merton (1938, 1968)의 이론은 거시적 조건들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힘과 이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대응 방식의 유형들을 제시하면서 일탈 및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특정한 거시 및 미시적 과정들을 구분해서 설명한다는 점에서(Cullen 1983; Featherstone & Deflem 2003; Messner 1988) 다른 이론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거시 수준에서 범죄는 사회적으로 널리 강조되는 문화적 목표의 성취에 비하여 그것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범적 가치가 얼마만큼 강조되는지와 관련된다. 즉, 전자의 중요성이 후자의 그것에 비해 더욱 강하게 강조되는 경우 높은 범죄율이 나타나게 될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고, 이러한 조건속에서 실제로 한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충분하지 않을 때, 높은 범죄율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거시 수준에서의 문화적/구조적 불균형은 개인에게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미시적 수준에서 이론은 이러한 사회적 힘에 개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하려고 하며, 개인의 범죄 및 일탈행동 역시 이러한 사회적 힘과 개인의 긴장에 대한 대응 방식 중의 하나로써 설명되고 있다. 즉, 범죄 행위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널리 강조되는 문화적 목표를 받아들이면서도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성취해야 한다는 문화적 규범을 거부하는 혁신(innovation) 유형인 경우에 주로 해당된다(Merton 1938). 이렇듯 Merton 이론은 범죄율이라는 집합적/사회적 수준의 현실과 범죄행위라는 개인적 수준의 현실을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지만, 그동안 Merton의 이론을 검증했던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이론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집중해 왔고, 반면 거시 수준에서의 범죄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의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Burton & Cullen 1992).

이에 본 연구는 Merton 이론에서 제시된 거시 수준에서의 범죄발생 메커니즘이 실제 범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Merton 이론에서의 주요 개념인 문화 및 사회구조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이 두 변수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각기 다른 사회 유형들이 범죄율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거시 수준의 이론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위해 미국 50개 주(state)를 분석 단위로 하여

각 주별 문화 및 사회구조의 상태를 여러 거시적 지표들을 통해 측정하였고, 이들의 조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범주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범죄율(경제적목표지향범죄, 폭력범죄, 사이버범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연구결과의 소개에 앞서, 먼저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Merton 이론에 대한 개요와 문화 및 사회구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Merton 이론을 검증했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Merton의 사회구조와 아노미

Merton(1938, 1968)은 한 사회의 일탈 및 범죄의 수준을 결정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제시하며 문화 및 사회구조의 두 영역 간 조합에 의해 일탈 및 범죄가 설명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먼저 문화의 영역은 가치중심적인 도덕과 규범에 관한 영역으로써, 한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정의된 목표의 성취에 대한 부분과 이를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규범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즉, 한 사회에서 흔히 경제적 성공이라고 정의되는 문화적 목표의 성취가 얼마나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이 얼마나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지 여부가 일탈 및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회에서 문화적 목표의 달성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면서도 적법한 수단을 통해 이를 성취하는 과정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다면, 이 사회에서는 목표의 성취를 위해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현상이 빈번해 질 것이고, 이것이 결국 그 사회의 높은 범죄율과 연결될 것이다.

Merton은 이러한 문화적 가치와 규범의 역할과 함께 사회구조의 역할, 즉, 한 사회에서 제도화된 수단이 얼마나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경제적 성공이라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적 목표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 혹은 적법한 기회의 총량은 필연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제도화된 수단을 통해 문화적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한 사회에서 문화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한다면, 이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특히 합법적 수단 사용에 대한 규범적 강조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Merton은 이러한 문화 및 사회구조 조건들의 조합이 한 사회의 높은 일탈 및 범죄 현상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서 문화와 사회구조의 조합이란 이 두 거시 수준의 영역이 각각 일탈 및 범죄라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 두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것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Merton 1938; Cullen & Messner 2007). 즉, 문화적 목표의 성취에 대한 열망, 제도화된 수단을 통한 성취의 강조, 합법적 기회의 충분한 제공 여부 등의 세 가지 요소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일탈 및 범죄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소들이 특정한 형태로 결합했을 때 높은 범죄율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누구나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문화적 목표가 강하게 공유되는 사회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기회가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나아가 합법적 기회를 통한 목표의 달성보다 목표의 달성 그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길 때, 이러한 문화 및 사회구조적 조건들은 개인에게 비합법적 수단을 통한 목표의 성취를 대안으로 고려하게 만들고,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 사회 전체의 범죄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Merton의 이론은 1960년대까지 일탈 및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문화와 사회 구조의 역할을 설득력있게 제시함으로써 많은 사회학자 및 범죄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Messner & Rosenfeld 2012; Snipes, Bernard, & Gerould 2019). 하지만 이후 주요 통제이론가들에 의해서 그 이론적 가정들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고(Hirschi 1969; Kornhauser 1978), 이론을 검증했던 여러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이론의 전망을 지지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1970년대 이후 이론에 대한 관심은 점차 약해져 갔다(Messner & Rosenfeld 2012; Snipes et al 2019). 예를 들어 통제이론가들은 Merton 이론의 검증에 있어서 개인 수준에서의 문화적 목표에 대한 열망과 기대 간의 격차,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 그리고 이러한 긴장과 일탈 행위 간의 관계에 주로 주목했고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 수준에서의 이러한 열망과 기대 간의 격차는 일탈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Burton & Cullen 1992).

그러나 이러한 이론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과연 Merton의 이론에서 제시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적절한 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였는지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되었다(Bernard 1984; Burton & Cullen 1992; Farnworth & Leiber 1989). 일부에서는 Merton 이론은 개인의 일탈 및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미시 수준의 이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수준에서의 집합적 범죄율을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사실상 두 개의 서로 다른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이며, 따라서 이 두 메커니즘이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Cullen 1983; Featherstone & Deflem 2003; Messner 1988). 나아가 Merton 이론은 미시 수준보다 거시 수준에서의 인과 메커니즘에 관한 이론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고(Bernard 1987), Merton 본인 또한 자신이 미시 수준에서의 긴장 대응의 메커니즘에 대해 언급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이론이 미시 수준에서의 심리학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Cullen & Messner 2007).

앞서 언급했듯이 Merton 이론에 대한 검증은 주로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 연구들, 특히 개인의 목표에 대한 열망과 기대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Merton이 제시했던 거시 수준에서의 문화와 사회구조의 상호작용이 집합적 수준에서의 일탈 및 범죄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론이 제시하는 거시 수준에서의 범죄발생 메커니즘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거시 수준의 분석단위를 사용한 경험적 연구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Merton 이론을 검증한 거시 수준의 연구들

이제까지 거시 수준의 분석단위를 사용한 연구가 많지 않았던 이유로는 먼저 어떤 수준이 분석 단위로써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문화와 사회구조의 상태를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시 분석단위를 택할 때 발생하는 종속변수 사용에 대한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런 어려움들은 최근 Merton 이론을 다수준(multi-level) 메커니즘으로 해석하고(Baumer 2007), 다수준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려는 노력(Hughes, Antonaccio, & Botchkovar 2018) 등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소수지만 몇몇 선행연구들에 의해 거시 수준에서의 Merton 이론의 검증이 이루어졌다. 먼저 Baumer와 Gustafson(2007)은 미국의 총 77개 메트로 폴리탄 지역 및 비(非) 메트로폴리탄 카운티(county)의 경제적목표지향 범죄율(instrumental crime rates)이 이들 지역의 문화 및 사회구조의 특성과 이 특성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이 되는지 검토했다. 먼저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저자들은 1) 경제적 성공이라는 문화적 목표를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2) 경제적 성공을 위해 합법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문화적 규범을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는지를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에 포함된 설문 문항들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저자들은 지역사회가 얼마나 충분하게 적법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직업 기회, 교육 및 경제적 수준, 불평등 정도 등 여러 지표를 이용하였고 이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저자들은 경제적 성공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높은 지역에서 합법적 수단을 통한 경제적 성공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낮을 때, 혹은 이들 지역에서 적법한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지지 못했을 때 높은 범죄율이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론에서의 전망과는 달리 두 문화 변수들과 하나의 사회구조 변수, 이들 세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Merton 이론이 부분적으로만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Chamlin과 Sanders(2013)는 43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간 연구를 통해 Merton의 이론이 이윤추구형 범죄인 마약밀매(drug trafficking) 범죄율의 변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저자들은 문화적 목표의 성취에 대한 강조를 측정하기 위해 유럽인가치조사(European Value Survey: EVS)에서 물질적 성공의 중요성을 묻는 문항을 이용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의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은 마약밀매 범죄율과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저자들은 사회구조적 제약을 나타내는 절대적 빈곤(영아사망률로 측정) 및 상대적 빈곤(지니계수로 측정) 수준이 강할수록 물질적 성공을 강조하는 문화로부터 비롯된 범죄유발효과가 더욱 강화된다는 점 역시 확인하였다. 즉, 빈곤율이 높거나 불평등의 정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경제적 성공을 위한 합법적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사회구조적 제약이 경제적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과 상호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써 저질러지는 마약밀매 범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Schanible과 Altheimer(2016)는 Merton이 언급한 문화의 두 요소, 물질적 성공에 대한 열망과 합법적 수단 사용의 강조가 상호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고, 이 두 요소 각각의 수준에 따라 사회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자들은 사회의 유형을 1) 물질적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하지만 합법적 수단에 대한 강조가 약한 아노미적(demoralized 혹은 deinstitutionalized) 사회, 2) 물질적 성공에 대한 강조는 약하지만 합법적 수단의 사용 및 전통적 규범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의례적(ritualist) 사회, 그리고 3) 이 두 요소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 안정적(stable) 사회로 구분하여, 이러한 사회 유형의 차이가 범죄율의 변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저자들은 안정적 사회와 의례적 사회에 비해서 아노미적 사회에서 합법적 기회의 부족, 즉, 사회구조적 제약이 범죄율을 더욱 크게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연구에서 문화적 요소들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WVS)의 관련 문항들을 통해 측정되었고, 총 35개국의 살인범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의 사회 유형에 따른 범죄유발의 직접효과와 이러한 효과가 불평등으로 측정된 사회구조의 제약이 심할수록 증대되는지를 살펴보는 상호작용효과를 함께 검증했다. 연구결과는 예측했던 것처럼 사회의 유형에 따라 살인범죄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노미적 사회로 분류된 국가에서는 높은 살인범죄율이, 안정적인 사회로 분류된 국가에서는 낮은 살인범죄율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저자들이 예측했던 아노미적 사회에서 높은 불평등이 보다 높은 살인범죄율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문화와 사회구조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경우 예측과는 반대로 아노미적 사회에서 불평등이 심할수록 낮은 살인범죄율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신동준(2004)이 Merton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살인과 자살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인을 탐색하였다. 저자는 세계가치관조사(WVS)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가 간 경제적 성공의 강조에 대한 문화적 수준을 측정하고 이것이 높은 살인범죄율과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소수인종에 대한 경제적 차별을 사용하여, 그 정도가 심한 국가일수록 높은 살인범죄율이 나타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반면 상호작용효과의 경우 이론적 예측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경제적 성공에 대한 열망의 효과는 불평등 수준에 의해 유의미하게 조절되지 않았고, 소수인종에 대한 경제적 차별은 경제적 성공에 대한 열망의 효과를 유의미하

게 조절했으나, 그 방향이 예측했던 것과 정반대로 나타났다. 즉, 앞서 살펴보았던 Schanible과 Altheimer(2016)의 연구결과처럼, 경제적 차별은 오히려 경제적 성공의 열망이 살인범죄율을 높이는 효과를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불평등이 높은 사회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성공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덜할 것이고, 이것이 경제적 성공에 대한 강조가 범죄를 유발하는 효과를 낮출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거시 수준의 분석단위를 통해 Merton의 이론을 검증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문화 영역에서의 아노미적 특징이 높은 범죄율과 유의미하게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불평등한 사회구조 역시 높은 범죄율과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Merton이 강조했던 문화와 사회구조 간의 상호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혼재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먼저 분석단위와 관련해서 보다 다양한 거시 수준의 분석단위를 적용한 연구들을 통해 이론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까지 이론을 검증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였다(Baumer & Gustafson 2007 예외). 국가는 거시 수준 연구들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분석단위이지만, 한 국가 내에서도 문화와 사회구조의 차이가 상당히 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 이외의 다양한 거시 수준의 분석단위들이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면 더욱 다양한 가능성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는 종속변수에 대한 부분이다. 국가 간 비교 연구의 경우, 공식범죄통계에서 상대적으로 암수범죄 비중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살인범죄율이 주로 활용되며, 앞서 살펴본 일부 선행연구들에서도 국가별 살인범죄율이 종속변수로 활용되었다(신동준 2004; Schanible & Altheimer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Merton의 이론은 목표의 성취에 대한 압력이 비합법적인 수단의 활용으로 이어지는 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감정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일부 폭력범죄보다는 뚜렷한 범행목표, 특히 경제적, 금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질러지는 경제적목표지향범죄(instrumental crime)에 대해 더 나은 설명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Chamlin과 Sanders(2013)의 연구가 마약밀매라는 경제적목표지향범죄를 종속변수로 사용했듯이 여러 유형의 경제적 목표지향범죄들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이론을 검증하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세번째로는 이론의 핵심 개념들에 대한 다양한 측정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분석단위의 문화 수준을 측정하는데 주로 가치관 조사(GSS, EVS, WVS)의 설문문항들이 활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돈이나 물질적 소유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묻거나(문화적 목표의 강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합법적 수단의 강조) 등의 문항들이 이용되었다. 물론 이러한 측정 방법은 충분히 유용한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문문항을 통한 측정 이외에 분석단위의 문화적 수준을 더욱 잘 포착할 수 있는 다른 측정 방법이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양적 분석과 관련하여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방법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거시 수준의 양적 연구에서는 가용한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리 통계 분석 시 통계적 파워가 약해져 2종 오류(Type II error)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변수 간 유의미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하는 추리 통계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분석단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술 통계를 활용, 개체 및 집단별 특징들에 대해 확인해 보고 이에 대한 해석에 중점을 두는 분석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Merton 이론에서의 문화와 사회구조의 조합이 단순히 선형적인 상호작용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인 패턴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술 통계 분석은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의 패턴들을 탐색해 보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본 연구의 초점

이러한 이론적 전망과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Merton의 이론이 거시 수준에서 범죄율을 설명하는데 유효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분석단위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거시 수준의 분석에서 잘 이용되지 않았던 미국의 50개 주(state)를 분석단위로 하여 Merton의 이론을 검증하고자 한다. 미국은 50개 주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국가로 각 주는 연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정부를

가지며 입법, 사법, 행정의 영역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함성득 2002), 각 주별로 고유한 구조적, 문화적, 제도적 특징이 존재하며 이러한 주 수준에서의 특징들이 여러 사회적 결과들의 차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다 (Boyce et al. 1999; Harrington & Gelfand 2014; Nadarajah, Atif, & Gull 2022; Neill, Yusuf, & Morris 2015; Rentfrow, Mellander, & Florida 2009; Vandello & Cohen 1999). 따라서 분석단위로서 미국의 주는 Merton의 거시 수준 이론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분석단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종속변수와 관련해서는 폭력범죄, 전통적인 경제적목표지향범죄, 사이버범죄 등 범죄 유형을 총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경우, 대체적으로 금전적인 성취 동기에 기반한 범죄라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재산범죄, 경제적목표지향범죄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정보통신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비교적 최신 유형의 범죄이며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재산범죄와 그 메커니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로써 사이버범죄를 활용하게 되면 전통적인 경제적목표지향범죄만을 분석했을 때 놓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측정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문화영역의 두 차원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문화적 목표의 강조 부분은 기존처럼 가치관 조사(WVS)에서의 설문 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하되, 합법적인 수단 사용에 대한 강조 부분은 문화적 엄격성/유연성(cultural tightness/looseness) 개념(Gelfand, Nishii, & Raver 2006)과 이를 미국 주 수준에서의 문화적 엄격성 점수로 환산했던 선행연구(Harrington & Gelfand 2014)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문화적 엄격성/유연성 개념은 한 사회가 규범에 있어 문화적으로 얼마나 엄격한지 혹은 유연한지를 의미하며, 문화적으로 엄격한 사회의 경우, 법과 제도에 대해 더욱 강하게 강조하고 그 위반에 따른 처벌 역시 보다 강한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문화적으로 유연한 사회의 경우,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것보다 자율성과 관용에 대한 강조가 강하고, 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 역시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Gelfand et al. 2006). 따라서 이러한 개념과 지표는 한 사회에서 합법적 수단을 통해 문화적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화적 엄격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문화적 유

연성이 강한 사회보다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더 강하게 강조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주별 문화적 엄격성/유연성 수준에 대한 인덱스 점수를 활용하여 각 주별 합법적 수단에 대한 강조 수준을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넷째, 분석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추리 통계를 통해 모수를 추정하고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따지기보다, 기술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분석단위가 미국의 50개 주이고 분석단위 모집단 전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모수 추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오차들과 비현실적 가정들을 감내할 필요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모집단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잘 기술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역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안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국 50개 주의 문화 및 사회구조의 수준을 측정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들의 조합별로 폭력범죄, 경제적목표지향 범죄, 사이버범죄의 비율이 각각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문화와 사회구조, 그리고 범죄율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문화의 경우, 문화적 목표에 대한 강조와 제도화된 수단의 강조 간의 격차를 중심으로 강한 아노미(평균 이상), 평균적 아노미(평균), 약한 아노미(평균 이하) 사회로 구분하였고, 사회구조 역시 마찬가지로 측정 변수인 불평등 수치를 기준으로 강한 불평등(평균 이상), 평균적 불평등(평균), 약한 불평등(평균 이하) 사회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화 작업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강한 문화적 아노미 사회이면서 강한 구조적 불평등 사회일수록 가장 높은 범죄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경제적목표지향범죄 및 사이버범죄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IV. 연구방법

1. 변수 및 측정

범죄율: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주 수준에서 각각 폭력범죄, 경제적목표지향범죄, 사이버범죄의 공식통계 범죄율이 종속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세 유형의 범죄율 모두 워싱턴 DC를 제외한 미국 50개 주의 2008년에서부터 2010년까지의 3년 평균 값이 사용되었다. 먼저 폭력범죄와 경제적목표지향범죄의 경우, 미국 연방수사국 공식범죄통계인 UCR (Uniform Crime Report)에서 제공되는 인구 10만명당 범죄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폭력범죄율은 UCR에서 폭력범죄(violent crime)로 분류되는 범죄들 중 금전적 목적과 관련이 높은 강도(robbery) 범죄를 제외한 살인(murder), 강간(rape),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 등 총 세 범죄 유형의 범죄율이 합산된 값이 사용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경제적목표지향범죄율은 UCR에서 분류하는 범죄 유형 중 금전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강도(robbery), 빈집털이(burglary), 일반절도(larceny-theft), 자동차절도(motor-theft) 등 총 네 범죄 유형의 범죄율이 합산된 값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범죄율의 경우, 미국 연방수사국 산하의 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에서 발표하는 미국 주별 인구 10만명당 사이버범죄 가해자의 비율이 사용되었으며, 온라인쇼핑 및 거래 관련 사기, 신분위조, 경매 및 신용카드 사기 등의 온라인 경제범죄들이 주로 포함된다.

이/노미적 문화: 각 주별 문화의 특징을 측정하기 위해 Merton 이론에서의 문화적 목표에 대한 강조와 합법적 수단을 통한 목표 달성의 강조, 이 두 하위 차원을 각각 측정하고, 이들의 조합으로 변수를 구성하였다. 먼저 첫 번째 차원인 ‘문화적 목표 강조’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6차(Wave 6) WVS 데이터를 사용하였고(Inglehart et al 2014), 해당 데이터는 2011년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측정에 활용된 문항은 ‘부자가 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것으로 응답 중 다소(somewhat), 상당히(quite), 아주(very)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하여 변수 측정에 활용하였다. 다만 이 응답 비율은 모든 50개 주에 대해 전부 제공되지 않고 각 주들이 속해 있는 9개 센서스 지역(census divisions)¹⁾에 대한 비율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같은 센서스 지역으로 분류되는 주들은 모두 동

일한 값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발표된 응답 비율 값은 표본오차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표준화 과정을 통해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이 평균을 상회하는지 혹은 하회하는지를 구분하여 이를 변수 측정에 사용하였다. 즉, 표준점수가 1 이상일 경우(‘상,’ 2로 코딩), 표준점수가 1과 -1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중,’ 1로 코딩), 그리고 표준점수가 -1 이하일 경우(‘하,’ 0으로 코딩)로 구분하여 각 주별로 값을 부여하였으며, 이 값이 클수록 다른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성취가 강조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두번째 차원인 ‘합법적 수단을 통한 목표 달성 강조’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적 엄격성/유연성(cultural tightness/looseness) 개념에 기반하여 Harrington & Gelfand (2014)가 산출한 미국 50개 주의 문화적 엄격성 점수(cultural tightness score)를 측정에 이용하였다. 합법적 수단 사용에 대한 약한 강조가 문화적 아노미 개념과 관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문화적 엄격성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1을 곱해서 문화적 유연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문화적 유연성 점수를 기반으로 표준화를 통해 ‘상’(표준점수 1이상; 2로 코딩), ‘중’(표준점수 1과 -1 사이; 1로 코딩), ‘하’(표준점수 -1 이하; 0으로 코딩)로 나누고 각 주에 해당되는 값을 부여하였다. 즉, 이 값이 클수록 다른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법적 수단의 사용을 약하게 강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이 두 차원의 코딩값들의 합산을 통해 아노미적 문화 변수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변수의 최대값은 $4(2+2)$ 이며 최소값은 $0(0+0)$ 이 되고, 변수의 값이 클수록 경제적 성공에 대한 열망과 비합법적 수단 사용에 대한 허용의 수준이 평균 이상일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높은 범죄율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의 최대값인 4를 가진 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최소값인 0을 가진 주는 4개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최소값 0을 가진 4개의 주들을 합산값 1을 가진 주들과 통합하였고, 이에 합산값 3을 가진 주(N=16), 2를 가진 주(N=19), 1을 가진 주(N=15) 빈도의 분포가 대체적인 균형을 이루어 이러한 분류를 최종적으로 아노미적 문화 변수로 사용하였다.

불평등한 사회구조 사회구조의 수준은 한 사회에서 문화적 목표의 성취를 위한 기회

1) New England, Middle Atlantic, South Atlantic, East South Central, West South Central, East North Central, West North Central, Rocky Mountain, Pacific

가 얼마나 폭넓고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처럼 본 연구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 미국 50개 주의 불평등한 사회구조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들 중 하나인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미국커뮤니티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자료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주별 지니계수의 평균값이 발표되었으므로(Weinberg 2011), 아노미적 문화 변수의 경우처럼 이 지니계수 값을 표준화하여 ‘상’(표준점수 1이상; 2로 코딩), ‘중’(표준점수 1과 -1 사이; 1로 코딩), ‘하’(표준점수 -1 이하; 0으로 코딩)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높은 값을 가질수록 높은 소득 불평등, 즉, 합법적인 기회를 구조적으로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상의 주별 범죄율, 아노미적 문화 및 사회구조 수준의 현황은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세 유형의 미국 주 수준에서의 범죄율이 아노미적 문화 및 사회구조 변수 각각의 유형과 이들 유형 간의 조합에 의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 먼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본 후, 아노미적 문화 및 불평등한 사회구조 변수의 유형별로 (상, 중, 하) 범죄율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또한 아노미적 문화와 불평등한 사회구조 유형의 총 아홉가지 조합²⁾에 따라 범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역시 확인해 볼 것이다.

2)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표 1〉 기술 통계: 주별 범죄율 및 문화/사회구조 유형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빈도(N)	%
경제적목표지향범죄율	3072.16	653.25	1801.4	4145.4	-	-
폭력범죄율	287.21	120.74	91.63	549.93	-	-
사이버범죄율	29.62	15.46	11.12	88.95	-	-
문화적 목표 강조						
상					7	14
중					31	62
하					12	24
비합법적 수단을 통한 목표달성 용인						
상					10	20
중					32	64
하					8	16
아노미적 문화						
상					16	32
중					19	38
하					15	30
불평등한 사회구조						
상					9	18
중					31	62
하					10	20

V. 분석결과

먼저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열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Spearman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먼저 아노미적 문화 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문화적 목표 강조의 측면, 즉, 물질주의적 요소는 세 유형의 범죄율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다. 반면 문화적 유연성으로 측정된 비합법적 수단을 통한 목표달성의 용인 측면은 세 유형의 범죄율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경제적목표지향범죄 및 폭력범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사이버범죄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문화적 유연성이 높은 곳에서 경제적목표지향범죄율과 폭력범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사이버범죄율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한편 이 두 문화적 측면들을 조합하여 만든 아노미적 문화 변수에 대해서는 경제적목표지향범죄만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아노미적 문화의 정도가 강한 주일수록 경제적목표지향범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한편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경우, 경제적목표지향범죄와 폭력범죄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이버범죄의 경우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불평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경제적목표지향범죄율 및 폭력범죄율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변수 간 Spearman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경제적목표지향범죄율	1,000						
(2) 폭력범죄율	.583*	1,000					
(3) 사이버범죄율	-.033	-.006	1,000				
(4) 문화적 목표 강조	-.204	-.049	-.121	1,000			
(5) 비합법적 수단을 통한 목표달성 용인	-.344*	-.304*	.465*	.182	1,000		
(6) 아노미적 문화	-.366*	-.277	.145	.758*	.719*	1,000	
(7) 불평등한 사회구조	.337*	.337*	-.024	-.104	-.316*	-.205	1,000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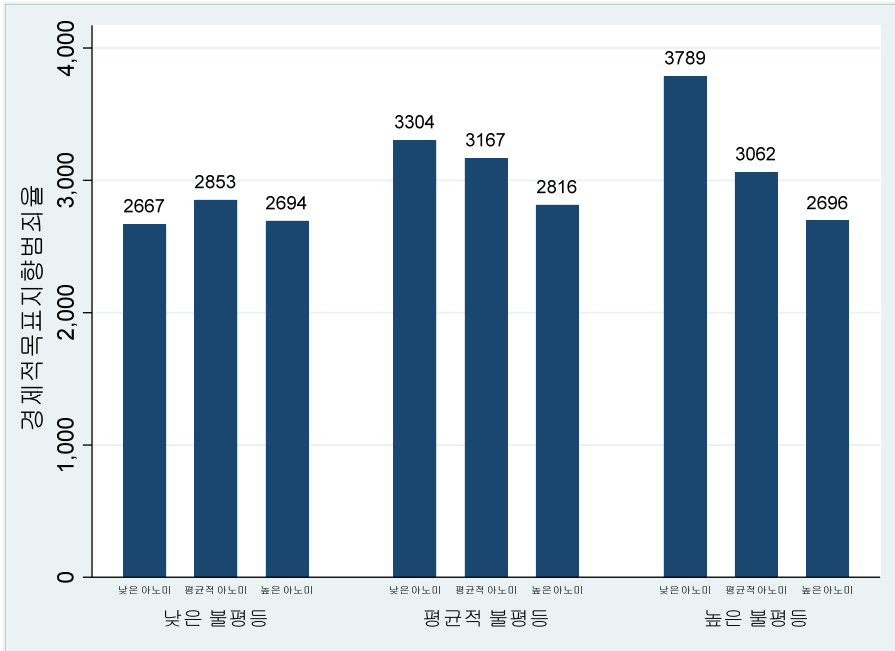
〈표 3〉 문화 및 사회구조 유형별 범죄율 평균

	경제적목표지향범죄율	폭력범죄율	사이버범죄율
문화적 목표 강조			
상	2658.06	259.41	24.08
중	3129.40	287.33	28.67
하	3165.83	303.11	35.33
비합법적 수단을 통한 목표달성 용인			
상	2892.01	227	38.49
중	2989.07	289.18	29.72
하	3629.69	354.58	18.16
아노미적 문화			
상	2762.65	225.69	29.03
중	3122.78	311.89	31.81
하	3338.18	321.56	27.48
불평등한 사회구조			
상	3384.58	333.41	28.91
중	3095.84	294.52	30.11
하	2717.55	222.96	28.76

문화 및 사회구조 각각의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범죄율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변수에서의 수준에 따라 경제적목표지향, 폭력, 사이버범죄 범죄율의 평균값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았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 먼저 문화적 목표 강조 변수에 대해서는, 그 수준이 강해질수록 세 유형의 범죄 모두에서 범죄율 평균이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경제적 성공에 대한 문화적 열망이 강하게 공유되고 있는 사회에서 범죄율은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합법적 수단을 통한 목표달성 용인 변수에 대해서는 경제적목표지향범죄 및 폭력범죄의 패턴과 사이버범죄의 패턴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비합법적 수단 용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범죄율이 감소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 측면의 조합인 아노미적 문화 변수에 대해서 경제적목표지향범죄와 폭력범죄는 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범죄율이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났으나, 사이버범죄의 경우 선형적 증감 패턴 대신 평균 수준에 있을 때 가장 높은 범죄율이 나타났다. 불평등한 사회구조 변수의 경우, 마찬가지로 경제적목표지향범죄 및 폭력범죄는 동일한 패턴을 보였는데, 불평등의 정도가 높을수록 범죄율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반면 사이버범죄의 경우, 불평등의 수준이 평균적일 때 가장 높은 범죄율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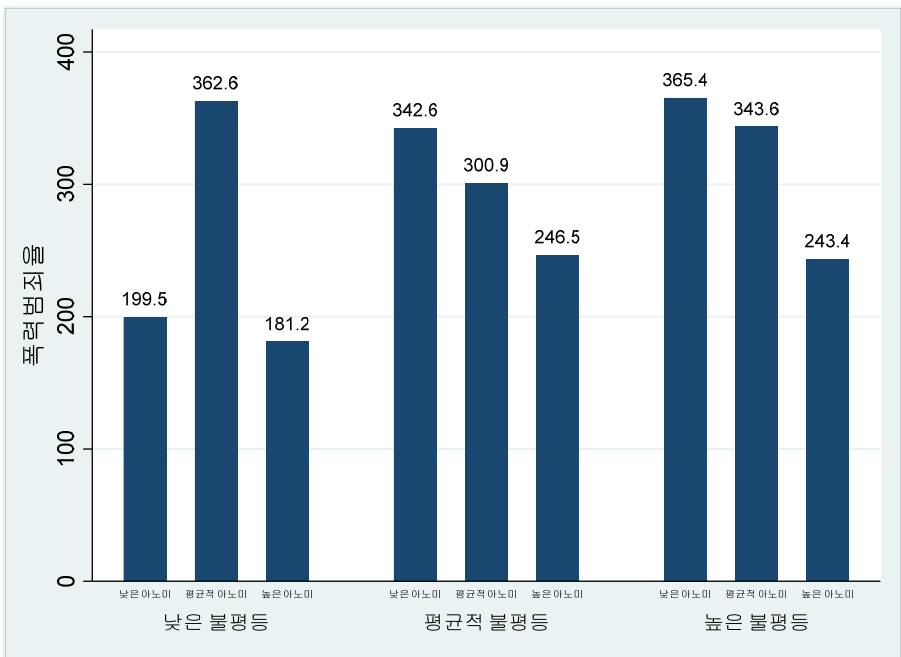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문화와 사회구조의 조합을 통해 사회의 유형들을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서 범죄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그림 1]은 아홉가지 유형의 문화 및 사회구조의 조합에 따라 경제적목표지향범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범죄율은 평균적인 불평등 정도와 높은 불평등 정도를 보였던 주들에서 아노미적 문화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높은 범죄율을 보였다. 특히 이론적 전망에 따르면 가장 높은 범죄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던 높은 불평등과 높은 아노미적 문화의 유형을 가진 주들의 경제적목표지향범죄율(10만명당 2,696건)은 전체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정도로 예측과 달리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높은 불평등 구조와 낮은 아노미적 문화를 가진 주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적목표지향범죄율(10만명당 3,789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문화 및 사회구조의 조합과 경제적목표지향범죄율



[그림 2]는 아홉가지 유형의 문화 및 사회구조의 조합에 대한 평균 폭력범죄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목표지향범죄와 마찬가지로 폭력범죄에서도 범죄율은 평균적인 불평등 정도와 높은 불평등 정도를 보였던 주들에서 아노미적 문화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높은 불평등과 높은 아노미적 문화의 유형을 가진 주들의 폭력범죄율(10만명당 243.4건)은 전체에서 세 번째로 낮아서 이 또한 앞선 경제적목표지향범죄에서의 패턴과 유사하게 이론적 전망과 상당히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적목표지향범죄와 마찬가지로 높은 불평등 구조와 낮은 아노미적 문화를 가진 주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범죄율(10만명당 365.4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가지 특기할만한 부분은 낮은 불평등 수준에서 중간 수준의 아노미적 문화구조를 가진 주들의 범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10만명당 362.6건). 이는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앞선 경제적목표지향범죄와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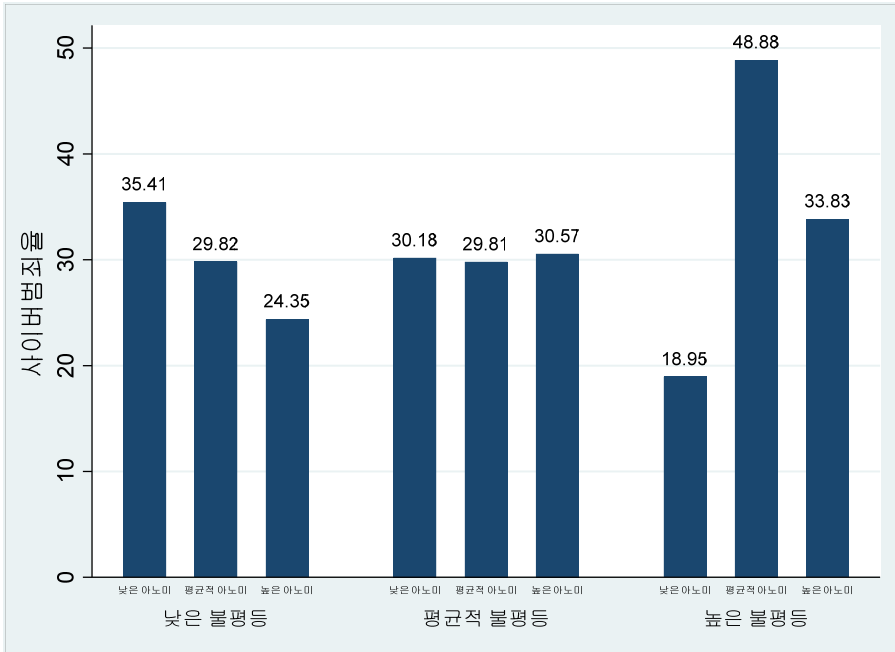
[그림 2] 문화 및 사회구조의 조합과 폭력범죄율



[그림 3]에서는 사이버범죄와 아홉가지 유형의 문화 및 사회구조의 조합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선 두 유형의 범죄들과는 다르게, 사이버범죄율은 상당히 불규칙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선형적 관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높은 불평등 구조를 가진 주에서 평균 이상의 아노미적 문화를 가진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0만명당 48.88건 & 10만명당 33.83건). 이는 사이버범죄가 앞선 두 유형의 범죄들에 비해 상반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경제적목표지향범죄 및 폭력범죄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였던 ‘높은 불평등-낮은 아노미적 문화구조’ 유형에서 사이버 범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10만명당 18.95건), 두 전통적 유형의 범죄와 사이버 범죄 간에 대조적인 속성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높은 아노미적 문화를 가진 주들만 대상으로 했을 경우, 불평등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사이버 범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24.35건 → 30.57건 → 33.83건), 이러한 부분은 특정 사회적 조건에서 Merton의 이론적 전망이 유효하게 작동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문화 및 사회구조의 조합과 사이버범죄율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Merton이 제시했던 아노미적 문화와 불평등한 사회구조 간의 조합이 거시 수준에서 높은 범죄율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미국 50개 주에 대한 양적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경제적목표지향범죄와 폭력범죄의 경우, 대체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가진 주에서 높은 범죄율을 나타냈고 반대로 아노미적 문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낮은 범죄율을 나타냈다. 사이버범죄의 경우는 문화 및 사회구조 모두 평균적인 주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을 나타내어 구조적 조건들과 범죄율 간의 선형적인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문화 및 사회구조의 조합과 범죄율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과 이들의 조합 유형에 따라 다양한 패턴들이 확인되었다. 경제적목표지향범죄와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불평등 정도가 높은 주들 중 문화적 아노미 수준이 낮은 곳에서 오히려 가장 높은 범죄율이 나타남으로써 이론적 전망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이버 범죄의 경우, 불평등 정도가 낮은 주에서는 아노미적 문화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범죄율이 낮아졌지만, 불평등 정도가 높은 주에 한해서는 아노미적 문화의 수준이 평균 이상의 주에서 높은 범죄율을 나타냈다. 나아가 아노미적 문화 수준이 가장 높은 주들에서는 불평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범죄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Merton이 제시했던 문화와 사회구조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이론에서 예측하는 방향으로 작동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상호작용 부분에 있어서 이론적 전망의 경험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신동준 2004; Schanible & Altheimer 2016).

특히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경제적목표지향범죄와 폭력범죄의 경우, 이론적 전망과 상반되게 높은 불평등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적 아노미가 오히려 낮은 범죄율과 관련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문화적 아노미를 구성하는 두 측면 중 문화적 목표 성취의 강조, 즉, 물질주의에 대한 부분은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변수간 상관관계의 크기와 유의미성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앞서 논의했듯 목표의 성취에 대한 강조 자체가 범죄에 대해 독립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여겨지지는 않았다(Merton 1938; Cullen & Messner 2007). 다만 이러한 목표 성취에 대한 문화적 열망이 적법한 수단을 통한 성취의 강조와 결합될 때 과연 그것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이론의 전망에서처럼 적법한 절차를 통한 성취를 강조하는 문화가 규범으로써 범죄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범죄행위를 동기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비정상성이 용인되는 문화적으로 유연한 사회에 비해 문화적으로 엄격한 사회일수록 목표 성취를 위해 개인에게 요구되는 윤리 및 절차 등의 수준이 높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압력과 스트레스의 수준 역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문화적 엄격성이 높은 사회에서 합법적인 기회의 접근이 제한적일 때, 이러한 범죄유발적 메커니즘은 더

욱 강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높은 수준의 경제적목표지향범죄와 폭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사이버범죄의 경우 경제적목표지향범죄 및 폭력범죄와 다른 패턴이 나타났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Merton의 이론적 전망, 즉, 높은 수준의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높은 수준의 문화적 아노미가 높은 범죄율과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은 사이버범죄에서 일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사이버범죄라는 비교적 최신의 범죄 유형이 약 100여년 전 Merton이 제시했던 범죄발생 메커니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현 시대에서 전통적 유형의 범죄들 보다 Merton의 이론에 더 부합하는 메커니즘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경제적 성공이 중요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한 성취는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 합법적 기회의 접근이 제한적일 때, 다른 전통적 유형의 범죄들보다 사이버범죄가 대안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 미국 범죄 흐름에서 전통적 유형의 범죄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사이버 재산범죄의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전통적 재산범죄의 피해 규모를 상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Tcherni et al., 2016)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금전적 목적, 특히 경제적 성취가 동기로 작용하는 부분은 이제 전통적인 경제적목표지향범죄들을 수단으로 삼기보다, 기대수익이 보다 높고, 잠재적 목표물로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며, 인지된 처벌의 확실성이 보다 낮은 사이버범죄를 통해 시도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Merton이 전망했던 아노미적 문화와 모순적 사회구조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범죄발생 메커니즘은 현 시대에 들어서 전통적 길거리 범죄들보다 사이버범죄에 의해 발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함께 본 연구의 한계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분석단위와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변수들을 유형화하는 전략을 취했고, 변수별 수준에 따라 상(평균 이상), 중(평균), 하(평균 이하)로 구분된 각각의 유형들이 종속변수인 범죄율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경우 유형화를 위해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화의 방법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결과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그 의미를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주의 범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수사

기관에 보고된 인구 10만명당 범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공식범죄통계의 한계 또한 공유하게 되며(MacDonald 2002; Mosher, Miethe & Hart 2011), 이 역시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즉,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범죄들의 총 규모와 이에 대한 지역 간 차이 및 범죄유형별 차이 등은 왜곡된 연구결과와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범죄피해조사를 이용하여 거시 수준의 범죄피해율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구를 재현해 보는 것도 이러한 왜곡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통해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먼저 미국의 50개 주라는 분석단위를 통해 Merton 이론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Merton의 거시 수준 이론을 검증한 연구들이 매우 드물었고, 이들 연구들도 대부분 국가 수준의 연구들이었기 때문에 국가 이외에 다른 거시분석 단위에서도 이론이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국가내에서 지역간의 문화적 차이, 구조적 기회의 정도 차이와 이들 간의 조합이 지역간 범죄율 변이와 관련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비록 이론적 전망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근거를 찾지는 못했으나 특정 문화 및 사회적 조건과 이들의 조합에 따라 여러 형태의 범죄율의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세 유형의 서로 다른 범죄율을 이용하여 이론적 전망이 각 유형의 범죄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범죄유형별로는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비록 완벽하게 Merton의 이론적 전망에 부합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이론에서의 설명처럼 사이버범죄가 높은 불평등과 상대적으로 높은 문화적 아노미 구조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것이 경제적목표지향범죄와 폭력범죄의 패턴과는 상반되게 나타남을 발견했다. 이는 각 범죄유형의 범죄발생 메커니즘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Merton 이론이 사이버범죄에 좀 더 잘 적용될 수 있다면 사이버범죄의 어떤 특징들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합법적 수단을 통한 성취의 강조라는 문화적 측면을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과 방법(문화적 엄격성/유연성)을 통해 측정하고 분석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적 차원을 측정

하고 이를 실증분석에 활용하려고 했던 시도는 이론의 평가에 있어서 조작화된 변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문화적 엄격성/유연성 지표는 국가 수준으로도 측정될 수 있는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신동준. 2004. “살인과 자살의 문화적 사회구조적 원인: 머튼의 아노미이론 검증에 위한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38(4): 33-71.
- 함성득. 2002. 미국정부론. 나남출판.
- Baumer, Eric P. 2007. “Untangling research puzzles in Merton’s multilevel anomie theory.” *Theoretical Criminology* 11(1): 63-93.
- Baumer, Eric P., and Regan Gustafson. 2007. “Social organization and instrumental crime: Assessing the empirical validity of classic and contemporary anomie theories.” *Criminology* 45(3): 617-63.
- Bernard, Thomas J. 1984. “Control criticisms of strain theories: An assessment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adequa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4): 353-72.
- Bernard, Thomas J. 1987. “Testing structural strain theor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4(4): 262-80.
- Boyce, James K., Andrew R. Klemmer, Paul H. Templet, and Cleve E. Willis. 1999. “Power distribution, th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A state-level analysis.” *Ecological Economics* 29(1): 127-40.
- Burton Jr, Velmer S., and Francis T. Cullen. 1992. “The empirical status of strain theory.”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15(2): 1-30.
- Chamlin, Mitchell B., and Beth A. Sanders. 2013. “Falsifying Merton’s macro-level anomie theory of profit-motivated crime: A research note.” *Deviant Behavior* 34(12): 961-72.
- Cullen, Francis T. 1983. *Rethinking Crime and Deviance Theory: The Emergence of a Structuring Tradition*. Totowa, NJ: Rowman & Allanheld.
- Cullen, Francis T., and Steven F. Messner. 2007. “The making of criminology revisited: An oral history of Merton’s anomie paradigm.” *Theoretical*

Criminology 11(1):5-37.

Farnworth, Margaret, and Michael J. Leiber. 1989. "Strain theory revisited: Economic goals, educational means, and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2): 263-74.

Featherstone, Richard, and Mathieu Deflem. 2003. "Anomie and strain: Context and consequences of Merton's two theories." *Sociological Inquiry* 73(4): 471-89.

Gelfand, Michele J., Lisa H. Nishii, and Jana L. Raver. 2006. "On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cultural tightness-loosen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6): 1225-44.

Harrington, Jesse R., and Michele J. Gelfand. 2014. "Tightness - looseness across the 50 United Stat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1(22): 7990-5.

Hirschi, Travis.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California University Press.

Hughes, Lorine A., Olena Antonaccio, and Ekaterina V. Botchkovar. 2018. "Neighborhoods, Individuals, and Instrumental Crime in Russia and Ukraine: A Multilevel Test of Merton's Anomie Theor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4(4): 1019-46.

Inglehart, Ronald, Christian Haerpfer, Alejandro Moreno, Christian Welzel, Kseniya Kizilova, Jaime Diez-Medrano, Marta Lagos, Pippa Norris, Eduard Ponarin, and Bi Puranen. 2014. "World Values Survey: Round Six-Country-Pooled Datafile Version." Madrid: JD Systems Institute. 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6.jsp

Kornhauser, Ruth Rosner. 1978.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An Appraisal of Analytic Model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acDonald, Ziggy. 2002. "Official crime statistics: their use and interpretation." *The Economic Journal* 112(477): F85-F106.

- Merton, Robert K. 1938. "Anomie and Social Structu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672-82.
- Merton, Robert K. 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 Messner, Steven F. 1988. "Merton's "social structure and anomie": The road not taken." *Deviant Behavior* 9(1): 33-53.
- Messner, Steven F., and Richard Rosenfeld. 2012. *Crime and the American Dream*. 5th ed. Belmont, CA: Wadsworth.
- Mosher, Clayton J., Terance D. Miethe, and Timothy C. Hart. 2011. *The Mismeasure of Crime*.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Nadarajah, Sivathaasan, Muhammad Atif, and Ammar Ali Gull. 2022. "State-level culture and workplace diversity policies: Evidence from US firm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77(2): 443-62.
- Neill, Katharine A., Juita-Elena Yusuf, and John C. Morris. 2015. "Explaining dimensions of state-level punitiveness in the United States: The roles of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26(8): 751-72.
- Rentfrow, Peter J., Charlotta Mellander, and Richard Florida. 2009. "Happy states of America: A state-level analysis of psychological,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6): 1073-82.
- Schaible, Lonnie M., and Irshad Altheimer. 2016. "Social structure, anomie, and national levels of homicide."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0(8): 936-63.
- Snipes, Jeffrey B., Thomas J. Bernard, and Alexander L. Gerould. 2019. *Vold's Theoretical Criminology*. 8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cherni, Maria, Andrew Davies, Giza Lopes, and Alan Lizotte. 2016. "The dark figure of online property crime: Is cyberspace hiding a crime wave?." *Justice Quarterly* 33(5): 890-911.

- Vandello, Joseph A., and Dov Cohen. 1999. "Patter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cross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2): 279-92.
- Weinberg, Daniel H. 2011. *U.S. Neighborhood Income Inequality in the 2005–2009 Period (ACS-16)*.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ensus Bureau.

Is Merton's macro-level anomie theory still valid? Examining the applicability of Merton's anomie theory to three types of crime in the fifty states of the United States*

Hyojong Song**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criminogenic mechanism proposed by Robert K. Merton (1938, 1968) is applicable to explain a variation in macro-level crime rates. Using the fifty states in the U.S. as the units of analysis, I measured the core theoretical concepts of the theory, cultural and social structures, and examined whether the categories of society based on the combinations of both types of structures can predict state level crime rat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 found different outcomes depending on type of crime, which includes a partial support for the theory as well as evidence conflicting with the theory. In both instrumental crime and violent crime, crime rates tend to be higher in the states where the level of the anomic cultural structure is low and that of the unequal social structure is high, which is contrary to the propositions of the theory. In cybercrime, in contrast, rates of cybercrime tend to be higher in states with stronger anomic cultural structure and unequal social structure,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theory.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the macro-level mechanism of crime proposed by Merton is better applicable to explain cybercrime than traditional forms of crime today.

❖ Keywords: Merton, anomie, strain theory, instrumental crime, violent crime, cybercrime

투고일 : 8월 31일 / 심사일 : 9월 27일 / 게재확정일 : 9월 27일
--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faculty research grant from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t Korea University in 2020.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at Korea University

